



고등교육 정/책/소/식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 컨설팅 결과보고서 발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 이하 교과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허상만, 이하 재단)은 연세대, 성균관대 등 5개 선도대학 사업단이 참여하고 있는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에 대한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2008년 4월 17일(목) 발간하였다.

※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Women into Engineering Program, WIE) : 공학을 전공하는 여학생의 능력과 역량을 개발하여 산업계·연구기관 등 전공 관련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멀티플레이어형 여성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재단이 교과부의 위탁을 받아 2006년부터 국내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임

※ 5개 선도대학은 '06년도에 5대 권역별(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영남, 호남)로 서류·공개심사를 거쳐 연세대, 성균관대, 강원대, 부경대, 군산대 선정

금년 1월 18일(금)부터 29일(화)까지 열흘간 실시된 이번 컨설팅에서는 학계, 산업계, 여성계 등 각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컨설팅 위원단이 ▲성인지적 관점에 따른 공학교육 개편 ▲현장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산학협력 및 취업촉진 프로그램 분야 등을 대상으로 5개 대학의 운영 현황 및 애로 사항을 중점 점검하였다.

※ 성인지적 관점 : 성(性)적 차이에 대한 특정 개념이 특정 성(性)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性)역할의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를 검토하고 고려하는 관점
교과부와 재단은 이번에 발간된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대학이 설치된 전국 155개 대학에 배포하는 등 5개 선도대학의 운영 현황과 우수사례를 타 대학들이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컨설팅 결과, 사업 중복 방지 및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단이 공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세부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5개 사업단은 공동 실무추진단(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대학총장 간담회 결과 보고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는 4월 4일(금)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학 총장님들을 포함해서 약 200여 명 가량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초청 대학총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오찬을 겸해서 '인재대국건설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정부의 지원'이라는 주제 하에 5개 대학 총장의 성공적 경영 및 자생적 발전전략 사례, 그리고 정부의 지원에 관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

대학 관련 및 여러 가지 과감한 규제 완화내용 ▲공립대학의 경우, 단과대학 또는 처·실·과 등 하부 조직을 예산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으로 규정, 보직교수 임기제 규정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모집 단위도 현재 복수학과 또는 학부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대학이 자율로 결정, 교원이 학과 또는 학부로 소속되어 있는 것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 ▲산학협력촉진대학연구소를 교지 밖의 산업단지나 연구단지 중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내에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학·석사 통합학위 과정도 허용 ▲학칙보고제도 폐지 ▲학년도 시작이라든가 만료일 규정도 폐지하는 등 소위 대학 현장에서 필요에 와 닿는 규제 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대학의 연구지원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 ▲현재 15% 수준인 연구개발 간접경비 지원비율을 최대 23%까지

확대하고 많은 대학이 재정적 부담을 느껴온 신규재정 지원 사업부터 대학의 매칭펀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 ▲금년도 예산으로 3700억 규모인 대학의 개인 및 소규모 연구비를 2012년 까지 1조 5천억 원으로 한 4배 정도 대폭 확대할 계획

또한 등록금 인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소위 맞춤형 국가장학제도를 구축 계획 등을 발표했다.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 TaLK (Teach and Learn in Korea) 운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는 4월 16일(수) 지역별 영어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해외교포 대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기 위해, 해외교포 대학생 및 한국 관련 전공 외국인 대학생을 초청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 후 교실에 영어강사로 활용하는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이하 TaLK 프로그램)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TaLK(Teach and Learn in Korea) 프로그램”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교포 대학생과 한국 관련 전공 외국인을 엄격한 질 관리 기준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국내 대학생들과 팀을 구성하여 '08년 하반기(8월)부터 방과 후 교실 영어강사로 참여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하는 해외교포 대학생 및 원어민 대학생들은 6개월~1년간 방과 후 영어수업에 강사로 참여함으로써,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질 높은 영어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한국문화체험을 통해 한국을 이해하고, 귀국 후에는 한국을 알리는 외교 홍보사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산학관이 함께 된다.

◎ 경제계와 대학, 정부는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우리 청년들을 세계화 시대의 주역으로 양성·배출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협약 체결 행사는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명 양성”의 추진을 위해 청년 인재 양성의 주체인 기업 및 대학과 역할을 분담하고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이 협약 주체(국무총리, 경제5단체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관계부처장관 등)를 중심

으로 산·학·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4월 중에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향후 5년간 해외취업 5만 명, 해외인턴 3만 명, 해외 봉사활동 2만 명 달성을 목표로 공공과 민간 부문이 연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별 추진계획 주요내용

- ① 해외취업 : 중국(비즈니스), 일본(IT), 중동(항공·건설) 등 주요 국가별 맞춤형 연수 및 취업확대 추진 (노동부, 국토해양부)
- ② 해외인턴 : 전문대학생(교육과학기술부), 무역인력(지식경제부), 재외공관(외교통상부) 인턴 등 추진
* 대학 재학생 중심으로 매년 6천 명 수준 실시
- ③ 해외봉사 : 평화봉사단(졸업생), 청년봉사단(재학생) 등 청년 대상별 장단기파견, 기업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 졸업생(2년), 재학생(1~6월) 파견 등 매년 4천 명 수준 실시

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첫 발표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권재철)은 전문대 이상 대졸자들의 직업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06년 10월 16~12월 8일 까지 실시한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약어 GOMS)의 첫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는 대졸자들의 졸업 후 직업이동경로조사를 통해 고학력자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사는 '04년 8월 및 '05년 2월 전문대 이상 졸업자 50만 2,764명 중 학교유형, 지역, 전공계열, 성별을 고려하여 표본추출된 2만6,5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05년 대졸자 50만 2,764명 중 89.9%인 45만2,107명이 첫 일자리(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대학 졸업 후 가진 첫 번째 일자리를 말함)를 경험하였으며, 첫 일자리를 갖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6개월 미만인 65.4%, 일자리 경험이 없는 경우도 11.0%에 달했다. 전공계열별로 6개월 이내에 첫 일자리에 진입한 비율을 보면 의약계열(78.3%), 예체능계열(68.1%), 공학계열(67.2%)이 높은 반면 인문계열(58.8%), 자연계열(60.3%), 교육계열(63.5%)은 상대적으로 낮았다(표1).

첫 일자리 진출분야를 20개 산업대분류(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기준임)별로 보면 제조업이 9만1,807명으로 21.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사업서비스업 14.7%, 교육서비스업 14.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1.8%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전

반적으로 서비스 관련 분야에 취업한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았다. 직업중분류(한국고용정보원의 2006년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기준)에서는 전문대와 대학교 졸업자 모두 첫 일 자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갖는 직업은 경영·회계·사무관

표 1. 첫 일자리 진입 소요기간

(단위 : %)

구분	졸업전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 이상	경험 없음	
전체	37.4	18.0	10.0	12.0	11.6	11.0	
성별	남자	40.8	15.7	9.3	11.5	10.9	11.8
	여자	34.3	20.3	10.7	12.4	12.1	10.2
학교 유형	전문대	40.7	19.3	10.5	11.6	10.3	7.6
	대학교	34.9	17.1	9.6	12.3	12.5	13.5
학교 소재지	수도권	38.6	17.2	9.7	11.8	11.7	11.1
	비수도권	36.7	18.6	10.2	12.1	11.5	10.9
전공 계열	인문계열	33.0	16.0	9.8	13.4	14.8	13.0
	사회계열	38.1	15.2	10.8	13.0	12.0	11.0
	교육계열	30.5	28.4	4.6	9.3	16.9	10.2
	공학계열	42.9	14.9	9.4	11.5	9.7	11.5
	자연계열	33.7	16.7	9.9	11.6	11.5	16.6
	의약계열	27.3	36.4	14.6	9.8	8.0	3.9
예체능계열	39.4	18.9	9.8	12.4	12.1	7.4	

※ 주) 교육대학은 분석에서 제외함

표 2. 학교유형별 첫 일자리 비교

(단위 : %)

학교유형	학교 소재지	성별	졸업자수(비율)	취업률	첫 일자리 경험률	월 평균 소득	주당평균 근로시간	진입 소요기간	입금 근로자 비율	전공일치 취업비율	첫 일자리 소재지(수도권)
전문대	수도권		228,336 (45.9)	82.8	93.4	148.4	50.1	3.5	95.5	67.8	49.0
		남	38,597 (42.4)	83.7	93.6	170.6	51.4	3.8	96.3	68.7	95.7
		여	52,506 (57.6)	81.2	92.9	129.1	47.6	3.6	98.0	70.1	97.9
		비수도권	137,233 (60.1)	83.1	93.5	149.4	50.8	3.4	94.4	66.7	17.2
	비수도권	남	67,464 (49.2)	83.9	93.3	176.3	52.5	3.7	93.0	62.4	17.2
		여	69,769 (50.8)	82.3	93.6	123.7	49.1	3.2	95.8	70.8	17.3
대학교	수도권		268,833 (54.1)	77.0	86.8	168.9	46.3	4.2	96.7	74.5	56.0
		남	54,014 (50.3)	80.1	85.3	211.2	48.4	3.4	97.2	77.9	86.0
		여	53,388 (49.7)	77.1	87.7	159.3	42.7	4.7	97.0	77.5	95.5
		비수도권	161,431 (60.0)	76.0	87.0	157.8	46.8	4.3	96.5	72.3	32.7
	비수도권	남	82,579 (51.2)	78.0	86.2	183.3	49.5	4.1	96.4	73.9	35.2
		여	78,852 (48.8)	73.9	87.8	132.1	44.0	4.5	96.5	70.7	30.2

련 직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 일자리가 전공과 일치하는 비율은 71.3%, 불일치 비율은 28.7%이며, 특히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대졸자의 전공불일치 비율이 각각 39.8%와 36.1%로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높았다. 전공일치 분야 취업 시 월 평균임금은 160만3천원으로 전공불일치 분야 취업 시(144만8천원) 보다 15만5천원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약계열과 공학계열은 전공일치분야 취업 시 불일치보다 각각 37만4천원, 27만7천원을 더 받았다.

첫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보면, 전공분야로 취업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모든 전공계열에서 높은 만족수준을 보였다. 특히 교육계열은 전공일치 분야의 임금근로자로 취업했을 때 월평균 임금(139만4천원)은 낮은 수준이나 전반적 만족도(3.57점)는 가장 높았다.

전문대와 4년제 대학교를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전문대 졸업자는 4년제 대학교 졸업자에 비해 취업률, 첫 일자리 경험률, 주당 평균근로시간 등은 높거나 많지만, 월평균소득, 진입소요기간, 임금근로자비율, 전공일치취업비율은 낮거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대 졸업생들이 4년제 대학교 졸업자에 비해 눈높이를 낮춰 취업을 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진입은 상대적으로 잘되지만 고용의 질은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표 2).

한국고용정보원 권재철 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대졸자들이 자신의 전공과 일치하는 분야에 취업했을 때 만족도도 높고 임금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지도의 중요성을 보여줬다”며 “특히 전문대 졸업자들처럼 눈높이를 낮추면 취업도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조사에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4년제 대졸자들도 취업전략에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진, 국가연구업적통합정보(KRI) 서비스 오픈

◎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허상만, 이하 재단)은 국가연구업적 통합정보(Korean Researcher Information, 이하 KRI)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KRI 구축사업은 재단과 대학 등 연구기관 간에 연구자들의 연구업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 관리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이 2007년 2월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3월 31일(월)에는 총 156개 기관이 KRI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KRI 시스템은 ▲연구업적 연계시스템 ▲대학별 연구업적관

리시스템 ▲연구업적정보 검증시스템 ▲연구업적 포털시스템 등 4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업적 연계시스템”은 자체 연구업적관리 시스템을 보유한 대학이 사용하는 것으로, 연구자가 학내 시스템에 본인의 연구업적정보를 등록하면, 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재단과 대학 간의 연구업적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대학별 연구업적관리시스템”은 자체 연구업적관리 시스템을 보유하지 않은 대학을 위하여 재단이 개발하여 무상 보급하는 소프트웨어로, 해당 대학의 연구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연구업적정보를 등록하면 재단과 직접 공유하게 된다.

“연구업적정보 검증시스템”은 연구자의 업적 중 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논문, SCI급 논문 및 특허정보를 확인해 주는 시스템으로, 연구자가 연구업적정보를 등록하면 △한국학술지 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 DB* △과학인용색인(Science Citation Index, SCI) DB* △SCOPUS DB* 특허정보 DB와 연계하여 등록된 정보가 SCI 논문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연구업적 포털시스템”은 연구업적에 대한 통합 서비스 시스템으로, 연구자가 등록된 연구업적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다양하게 검색할 수 있으며, 등록된 정보에 대한 통계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KRI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재단의 통합연구인력정보와 각 대학의 연구업적정보가 연계되어, 연구자들은 연구업적정보(논문게재실적, 저역서실적, 지식재산권, 연구비 수혜, 전시 및 작품발표실적 등)를 재단과 대학 등에 중복 등록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고, 각 대학은 소속 연구자들의 최신 연구업적정보를 KRI시스템을 통해 쉽고 빠르게 제공 받아 관련 행정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유관기관 등은 동일한 정보를 관리하는 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연구자들이 입력한 정보를 “연구업적정보 검증시스템”을 통해 검증하여 국가 연구지원사업의 과제 선정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구자별 및 기관별 재단 등재 학술지 또는 SCI 논문 수와 같은 정확한 통계정보를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 '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 계획' 보고

○ 정부는 앞으로 '교육 살리기'와 '과학기술 강국 건설' 통해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앞당길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는 2008년 3월 20일(목) 「교육 살리기, 과학기술강국 건설」로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한다는 내용의 「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계획」을 이명박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교과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정부주도의 획일적 서비스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교육체제를 자율화·다양화하는 한편, 교육에서 낙오된 사람이 없도록 복지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한층 더 높이고,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교과부가 출범한 취지에 부응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효율화함으로써 우수한 과학인재를 양성하여 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하며,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내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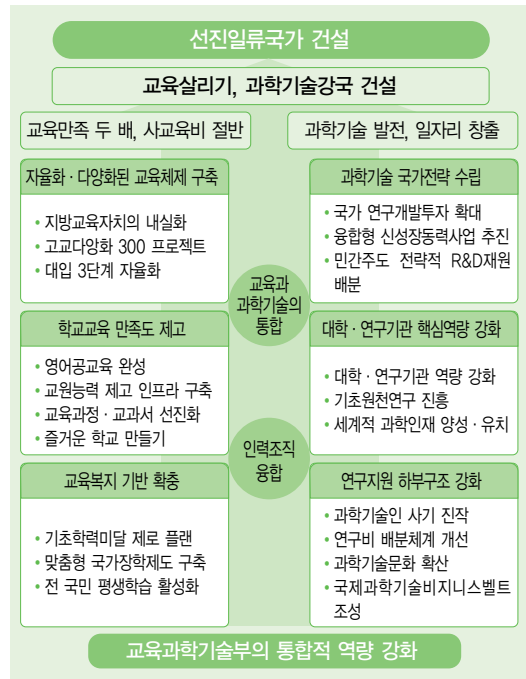


그림 1. 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계획

표 3. 2008년 입법 추진 계획

반기별	법령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교육살리기상			
상반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시·도교육청으로 업무 이양	'08.6
	초·중등교육법 개정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근거 마련	'08.6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대학입학 전형관련 정부기능을 대교협/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전문대교협으로 이양	'08.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정	교육정보 공개	'08.6
하반기	(가칭)국가의 장학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가칭)국가장학재단 설립	'08.9
	평생교육법 개정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	'08.10
	초·중등교육법 개정	국가교육과정 심의기구 설치 자율형 사립고 운영 법적 근거 마련	'08.10
2. 과학기술강국 건설상			
상반기	국립대학법인화법 제정	대학의 자율성 확대 및 효율적 경영체제 확립	'08.6
하반기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대학의 외부평가인증기관 지정 기준, 절차, 방법 등 규정	'08.8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한국과학재단법 개정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 통합	'08.9
	(가칭)국가학술연구재단법 제정		
	교육공무원법/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관한법률 개정	교수·연구원의 상호파견, 겸임, 고용휴직 활성화 근거규정 마련	'08.9
	(가칭)국립대학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대학회계제도 도입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08.10

* 법률안 국회 제출 시점임

교과부, 이공계 졸업자 1천 8백명 연수지원에 나선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는 청년 실업난을 완화하고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08년도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을 추진한다.

동 사업은 이공계 출신자들에게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기술교육기회를 6개월간 제공함으로써 이공계 대졸인력의 취업을 지원하고, 현 인력의 기술수준과 산업현장의 기대수준과의 양적·질적 불일치(mismatch)를 해소하는 산업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다.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수생 자격은 이공계 대졸(전문대졸, 대학원 졸 포함)미취업자만 32세 이하인 재(졸)업예정자 포함)로, 연수생에게는 연수기간(6개월 내외) 중 1인당 월 30~50만원의 연수수당이 지급된다.

연수대상 기관은 이공계 출신자를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관련 산업체에 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자치단체(기업, 연구기관, 대학 공동협력), 기타 전문기술인력 양성 기관·단체이다.

동 사업은 '03년도부터 추진된 이래 2007년도까지 총 15,782명의 연수생을 선발하여 11,629명(73.7%)을 취업시킴으로써 청년실업 완화와 산업기술인력 공급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교협,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 발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장무 서울대학교 총장, 이하 '대교협')는 2008년 3월 19일(수) 전국 198개 대학(교육대, 산업대 포함)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하였다.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은 새 정부의 대입 자율화 방침에 따라 대교협이 직접 대입전형 업무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첫 해로서 대교협은 대입 자율화에 따른 수험생의 불안과 학부모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일정을 당초 발표하기로 했던 일정(3월말)보다 10여일 정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울러 대교협은 대학입학전형과 관련하여 내신성적 반영비율 자율화, 수능 등급제 보완 등 입시전형체도의 변경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2008년 1월 9일 전국입학처장협의

회를 통해 2009학년도 학생선발과 관련한 대학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2008년 2월 4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각 대학이 2009학년도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지 않고, 개별 대학의 입학전형이 새로운 사교육비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며, 논술고사에 대한 국·영·수 중심의 대학 본고사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등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 수립에 고려할 일반적인 사항을 결정·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 대학이 2009학년도 입학전형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주요 특징은 ▲학생부성적의 영향력 2008학년도에 비해 증가 : 총 모집인원의 1/5 정도를 학생부만으로 선발 ▲대입전형의 다양화·특성화 더욱 진전(입학사정관제 등) ▲논술 실시 대학 감소로 수험생 논술고사 부담 대폭 경감 ▲많은 대학이 저소득층을 위한 기회균형선발 시행 ▲전년 대비 큰 변화 없이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들의 자율적인 노력을 엿보인 것 등이다.

* 대교협 대학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http://univ.kcue.or.kr>)의 대학입학정보를 통해 "2009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 검색 가능.

* 대교협 홈페이지(<http://www.kcue.or.kr>)에서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다운로드 가능.

日 어학연수생도 장학금 추진[3.21, 한국일보]

◎ 일본 정부가 어학 연수 등을 위해 '취학생' 비자로 일본에 머무는 사람에게 대학이나 전문학교 '유학생'과 같은 수준의 체재 기간과 장학금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3월 2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 입국체류과장은 19일 자민당 유학생 등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의원들로부터 “유학생과 취학생을 나누는 나라는 일본뿐”이라는 지적을 받고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대답했다. 법무성은 취학생의 체류 조건을 유학생 수준으로 끌어 올려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유학생에게 1년 또는 2년의 유학 비자를, 취학생에게는 6개월이나 길어야 1년의 취학 비자를 발급하면서 차등을 두어왔다. 이 때문에 취학생은 유학생에 비해 법으로 허용된 아르바이트 시간이 적고 장학금도 거의 받을 수 없으며 까다로운 입국 심사를 받아왔다.

유학생·취학생 일원화 방안은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

가 1월 시정 연설에서 유학생을 늘리기 위해 '유학생 30만 명 계획'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2006년 말 현재 일본 유학생은 13만2,000명, 취학생은 3만7,000명이며 유학생의 70% 정도가 1년 정도 취학생 기간을 거친 뒤 대학에 입학하고 있다.

미 주립대 학생 유치 경쟁 [3. 10, 중앙일보]

○ 미국의 주립 대학들이 다른 주 출신 학생에 대해 수업료를 깎아 주면서 학생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8일 보도했다. 그동안 주립 대학들은 대학이 속한 주에 사는 학생들에게 이득을 준다는 취지에서 소속 주 학생에게는 수업료를 싸게 받는 대신 다른 주 출신의 학생들에게는 훨씬 비싼 수업료를 받아 왔다.

NYT에 따르면 이스트베이 캘리포니아 주립대는 올 새 학년도부터 서부 지역 15개 주가 참여하는 학부생 교환 프로그램에 동참한다. 이 프로그램에 속한 다른 주 출신 학생에게 수업료를 덜 받을 계획이다. 이 학교의 비(非)캘리포니아주 출신 학생의 수업료는 연간 1만1481달러(약 1100만원)지만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4731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네브래스카 주립대도 올 가을 학기부터 아이오와주 출신 학생들에게는 수업료를 낮춰 줄 계획이다. 테네시 주립대도 인근 앨라배마와 조지아주 출신 2~3학년생의 수업료를 테네시주 출신 학생 수업료에 25%만 더한 수준인 학기당 3776달러로 책정했다.

미 경영학 최고는 펜실베이니아대 [3. 4, 한국경제]

○ 펜실베이니아대 경영대학이 미국에서 가장 좋은 경영 대학(학부)으로 꼽혔다. 미국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는 학과 프로그램 및 교수진의 질과 학내외 평가, 졸업생의 취업 정도 등을 종합해 각 대학 경영대학(경영학과)의 점수를 매긴 결과 펜실베이니아대 경영대학이 1위를 차지했다고 4일 보도했다.

펜실베이니아대 경영대학은 이 조사가 시작된 2006년부터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펜실베이니아대는 미국 1위의 경영대학원으로 꼽히는 와튼 스쿨을 갖고 있다. 경영학 교섭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셈이다. 사립학교인 이 대학 경영대학의 연간 학비는 3

만5916달러에 달했다. 작년 이 대학 경영대 졸업생들이 받은 초임은 6만달러 (중간치 기준)로 다른 대학보다 상당히 많았다. 2위는 버지니아대 경영대학이 차지했다. 버지니아대는 교수진의 질과 졸업생 취업을 등 대부분 분야에서 펜실베이니아대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졸업생 초임은 5만8000달러로 약간 적었으나 주립대인 만큼 학비가 연간 8690달러로 월등히 저렴했다.

미 50대 경영대학 중 연간 학비가 가장 비싼 곳은 45위에 랭크된 볼티모어에 있는 로올라 칼리지로 4만2730달러에 달했다. 반면 한 단계 아래인 46위를 차지한 플로리다대는 3372달러로 가장 싼다.

표 4. 미국 10대 경영대학 (단위 : 달러, 명)

순위	대학	연간학비	졸업후 초임	교수당학생비율
1(1)	펜실베이니아	35,916	60,000	11.25
2(2)	버지니아	8690	58,000	10.52
3(7)	노트르담	35,187	53,500	18.07
4(10)	코넬	19,291	55,000	19.14
5(4)	에모리	34,336	55,000	9.72
6(5)	미시간	12,585	60,000	14.07
7(8)	브리검영	3840	48,000	18.16
8(9)	뉴욕	36,524	60,000	11.73
9(6)	MIT	34,986	61,000	2.41
10(13)	텍사스	8908	49,500	42.22

* 초임은 2007년 중간값 ()안은 작년순위.
* 자료 : 비즈니스위크